

역시 이종범...KIA가 먼저 웃었다

고비마다 귀중한 안타... 3타점 맹활약

한국시리즈 1차전 SK 5대 3 꺾어

타이거즈 'V10' 향해 힘찬 스타트



'노장은 죽지 않았다.' '영원한 야기 호랑이' 김상진의 완투 승으로 대단

원의 막이 내렸던 1997년 한국시리즈에서 '야구 천재' 이종범은 톱타자로 팀 공격을 주도하며 1993년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시리즈 MVP의 영예를 품어 안았다.

12년이 지난 2009년 10월, 팀의 최고 참으로 다시 한번 가을 그라운드에 오른 이종범은 두 개의 적시타로 3타점을 기록하며 오랜 기다림을 해온 KIA 팬들에게 천금같은 승리를 안겨줬다.

16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SK와의 한국시리즈 1차전에서 3-3으로 맞선 8회말 KIA의 노장 이종범은 역전 적시타를 터트리며 5-3 승리의 주역이 됐다. 선발로 출격한 로페즈는 8이닝 3실점의 후투로 마운드를 지키며 한국시리즈 첫 승리투수가 됐다.

KIA는 12년만의 한국시리즈 1차전에서 승을 뒀으며 'V10'의 향한 발걸음에 속도를 더하게 됐다.

1차전 승리팀이 우승컵을 가져 가지 못한 것은 26번의 한국시리즈에서 5번에 불과했다. 9번 우승에 빛나는 KIA도 선동렬과 빙그레 이상군의 맞대결이 벌어진 1989년 한국시리즈 1차전에서 0-4로 패배를 기록했던 것을 제외하고는 8번의 우승당시 모두 1차전을 승리로 장식했다.

이번 1차전 승리는 1승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든든한 선발진과 체력적인 면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불투명하고 KIA의 승리를 낙관할 수 없었던 것은 무더진 경기감각이었다. KIA는 지난 9월25일 히어로즈와의 시즌 최종전 이후 그라운드에서 오르지 못했던 만큼 1차전 어려운 승부를 펼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KIA 선수들은 회가 거듭 될수록 빠른 속도로 경기감각을 찾아갔다.

두 개의 아쉬운 실책이 나오기는 했지만 모두 실점으로 이어지지 않는 등 '승리의 여신'도 KIA 편이었다.

경기감각 조율이 관건이었던 1차전에서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전력을 끌어 올린 KIA는 승리까지 거머쥐면서 선수단의 분위기가 한층 달아올랐다. 2년 연속 한국시리즈를 경험한 SK를 상대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으며 남은 경기 거침없는 승부의 발판을 마련했다.

선수단의 고른 활약도 고무적이다. '백전노장' 이종범이 3타수 2안타(3타점)를 기록하며 공격의 선봉에 섰고, 2루수로 선발 출전한 '무서운 신인' 안치홍은 안타를 신고하지는 못했지만 신인답지 않은 깔끔한 수비와 패기 넘치는 공격으로 한국시리즈 활약을 예고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이겼다!

16일 광주 무등야구장에서 열린 한국시리즈 1차전 KIA-SK경기. 6회말 2사 만루 상황에서 이종범이 좌익수 앞 안타로 2타점을 올린 뒤 주먹을 불끈 쥐며 환호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전·현직 감독 '세계 예술계 인사 100인'에

광주비엔날레 전·현직 예술감독들이 '세계 예술계 인사 100인'에 선정되는 등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오쿠이>



<지오니>

이자 서펜타인 갤러리의 전시기획자인 한스 올리히 오브리스트가 차지했으며, 2, 3위에는 뉴욕 현대미술관장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 인터넷판에 따르면 제7회광주비엔날레 예술총감독 오쿠이 엔위저(46)와 2010광주비엔날레 예술총감독에 선임된 마시말리아노 지오니(37)가 예술전문지 아트리뷰(Art Review)매거진이 선정한 '파워 100'에 이름을 올렸다. 지오니는 50위, 오쿠이는 67위에 기록됐다.

1위는 스위스 태생의 비평가

인 글렌 디 라우리와 영국 테이트미술관장인 니컬러스 세로타가 올랐다. 또 4위에는 베니스비엔날레 대니얼 번바움 총감독이 선정됐다.

1949년 창간된 아트리뷰 매거진은 매년 10월 세계 예술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개인과 단체를 선정, '파워 100'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전남 '교사대란' 대책세워라

도교육청 국감... 정두언 의원 교육부 정책 비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정두언(한나라당) 의원은 16일 전남도교육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교과부의 교원배정 방식 변경에 따른 '전남 교사대란'을 지적한 광주일보(16일자 6면) 보도와 관련, 교과부는 정원 배정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학생 수만으로 교원을 배정하면 도서벽지 지역과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전남의 교육은 무너진다"면서 "교과부에서 부족한 교사는 기간제나 전일제 교사로 충당하면 된다고 하는데, 누가 적은 보수를 받고 도서벽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만약 교과부의 교원정책이 이대로 진행된다면 당장 내년에만 전남에서 700명이 넘는 교원이 줄게 되고, 이 같은 현상은 그 다음해에도 비슷한 규모로 이뤄질 것"이라

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광주·전남에서는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광주·전남도 교육청과 전남대 등을,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전남도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조대부고 총동창회 친선 체육대회

◆ 2009년 총동창회 체육대회 ◆

◆ 일시: 2009. 10. 18(일) 09:30 ◆

◆ 장소: 모교운동장 ◆

☎ 062-230-0200, 062-232-6897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총동창회 양재근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신바람 광주야구 ▶ 3면 한우 날개달다 ▶ 4면 '추억의 동산' 중외공원 ▶ 5면 Books ▶ 8·9면 독자와 함께 ▶ 13면 KS 1차전 히어로 이종범 ▶ 14면

세기보청기! 세계브랜드의 자부심을 세우다!

세계의 명품 브랜드가 모여 만든 세기보청기. 세기보청기는 세계의 명품 브랜드가 모여 만든 세기보청기. 세기보청기는 세계의 명품 브랜드가 모여 만든 세기보청기.

세계의 명품 브랜드가 모여 만든 세기보청기. 세기보청기는 세계의 명품 브랜드가 모여 만든 세기보청기. 세기보청기는 세계의 명품 브랜드가 모여 만든 세기보청기.

세계의 명품 브랜드가 모여 만든 세기보청기. 세기보청기는 세계의 명품 브랜드가 모여 만든 세기보청기. 세기보청기는 세계의 명품 브랜드가 모여 만든 세기보청기.

www.segiboclear.com

1588-8489 / 062-222-0101

062-230-5338